



Governor Andrew M. Cuomo
State of New York



Governor Chris Christie
State of New Jersey

즉시 배포용: 2014년 9월 11일

CUOMO 주지사와 CHRISTIE 주지사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법 집행 및 보안 기관에서 대비 및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두 주의 그룹을 소집

모든 관련 공공 안전 기관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FBI 합동 테러 태스크 포스를 만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 및 Chris Christie 주지사는 오늘 뉴욕 - 뉴저지 지역에서 보안 대비 및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주 및 연방 법 집행 기관 및 공공 안전 사무실에서 함께 고위 관리를 소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극단적인 테러 움직임의 증가와 각 주와 도심 지역에서 보이는 잠재적인 위협에 비추어, 뉴욕과 뉴저지의 항만 공사와 조정하는 이 노력은 모든 관련 법 기관과 보안 관리자들을 모두 소집하여 존재하는 보안과 대비에 대해 긍정하고 구축할 것입니다. 이는 전세계 금융 자본의 중심이자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관광 및 상업 허브 중 하나인 도심 지역에서 고위험의 입구 확보를 담당하는 공항, 항구, 열차 및 사이버 입구 위협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할 구역 조정을 강화할 것입니다.

두 주지사는 법 집행 기관과 정보 기관의 수십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방 그룹인 연방 조사국 합동 테러 태스크 포스와 만날 것입니다. 이 회의는 FBI의 뉴욕 현장 사무소의 담당인 George Venizelos 부감독이 참석할 것입니다. Jeh Johnson, 미 국토안보부 장관도 참석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해외의 극단적인 테러 조직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위협으로 인해, 우리는 미국으로 향해진 이러한 단체들의 모든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금융, 상업, 관광의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어 우리를 잠재적인 테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방, 주 및 지역 정부 사이에 의한 협력을 강화하여 테러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더 잘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 주 및 연방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과 시민에 대한 위협에 대한 경계에 서있는 그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해외에서 증가하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두 주와 연방 정부 사이에서 우리의 사람들, 지역, 자산의 안전을 위해 조심스러운 협력과 완벽한 대비 및 보안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라고 Christie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을 함께 소집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보호 및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존의 노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어떠한 잠재적인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보장합니다.”

뉴욕에서 이끄는 대표는 주 경찰청장 Joseph D'Amico, 국토 보안 및 긴급 서비스 부문 위원 Jerome Hauer이 될 것입니다. 그룹에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뉴욕과 뉴저지의 항만 관리위원회와 뉴욕 주 경찰, 뉴욕 경찰국, 수도권 교통 기관 경찰, 뉴욕 주 방위군 및 다른 법 집행 기관과 공공 안전 기관을 포함합니다.

뉴저지에서 이끄는 대표는 주 경찰 청장 Col. Rick Fuentes, 뉴저지 국토 보안 및 대비 이사 Christopher Rodriguez, 뉴저지 주 경찰, 뉴저지 트랜짓, 뉴저지 주 방위군 및 다른 법 집행 기관 및 공공 안전 기관에서의 대표들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 그룹은 FBI의 합동 테러 태스크 포스(JTTFs)와 함께 작동할 것입니다. JTTFs는 테러 활동에 관한 정보에 대해 원스톱 정보를 제공하고 뉴욕시, Albany, Buffalo를 포함하여 전국 103개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와 뉴욕 당국은 두 주의 그룹의 회의 소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FBI 합동 테러 태스크 포스(JTTFs)에 관하여:

FBI 합동 테러 태스크 포스 또는 JTTFs는 우리나라의 테러와의 최전선이며 .미국의 법 집행 기관과 정보 기관의 수십 로컬 기반의 고도로 훈련된 작은 세포, 정열적인 수사관, 분석가, 언어 학자, SWAT 전문가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러 조사에 관해서는 그들은 모든 것을 합니다: 주도자를 쫓고, 증거를 수집하고, 체포하고 특별한 사건에 대해 보안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순간의 통지의 위협과 사고에 대응합니다. 태스크 포스는 우리의 56개의 현장 사무소마다 각각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전국 103개의 도시에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JTTFs 중 71개가 9/11 테러 이후 만들어졌으며, 1980년 뉴욕 시에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JTTFs는 600개의 주 및 지방 기관과 50개의 연방 기관 (국토 보안국, 미군, 이민 및 세관 집행국 및 교통 안전국 및 등등)출신의 전국적으로 4,200명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9/11 테러 이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들은 테러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여러 기관에 걸쳐 공유된 정보 기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 발생 이전에 연구자와 관리자 사이의 친숙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함께 반응하는 하나의 팀으로 법 집행 및 정보 사회 전역에서 재능, 기술, 지식을 모으는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